

수 요 인 터 뷰

문화재 훼손의 敵은 風化현상 보다 사람

황수영 박사

(전 동국대학교 총장)

대답 : 최정희 편집국장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부에서 수업을 하고 유수(高裕璽)선생과의 인연으로 길을 바꿔 고고학에 몰바친 황수영박사(黃壽永·76)는 저서(불교와 미술)의 머리말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했다.

“해방과 함께 스스로의 길길이 마련되었다.”

그로부터 반백년, 불교미술과 성보문화재에 더욱 애정을 갖고 ‘갈길’을 개척하고 지켜온 황수영박사를 만나 고고학 50년과 날로 심각해지는 문화재 훼손 그리고 그 보존책에 대해 들어본다.

—제10회 하성(霞城) 학술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이 상은 고 이선근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고, 국학연구에 공이 큰 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 소감이 어떠세요.

▲ 내가 이사장으로 있다가 내놓았더니 상을 주더군요. 공보다는 사람은 죽는날 까지 일을 해야 하니까 쉬지 말고 일하라는 뜻으로 받았습시다.

고고학 외길 50년

—우리나라로 회수(壽壽)이신데 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다는 증표이겠지요.

▲ 나는 회수라는 말을 안써요. 그말은 일본 사람들이 즐겨쓰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일을 안하면 사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 능력이 감퇴되거든요. 그래서 직함이 크고 작고간에 다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에 문화재위원직도 내놓았어요.

—경륜으로 이끌어 주셔야죠. 지금같은 계신일은 어떤 일이 있으세요.

▲ 동국대 명예교수와 정선문화연구원 객원교수로서 강의와 하고요. 안중근의사 숭모회 이사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오래된 최고령 이사장입니다.

—왜 안의사숭모회 이사직은 안 내놓으셨어요.

▲ 안의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라가 위태로울때 구국의 일념으로 의로운 행을 보여주시 겠을 크게 존경합니다.

—평생 고고학에 몰바쳐 오시면서 업적도 많이 남기셨는데 뒤돌아보면 감회가 크시고 뿌듯하실때도 있으시겠습니까.

▲ 업적이란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칭찬하면 안돼요. 새로운 학설을 내놓아도 시간이 지나

면서 검토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건 돌려 내야 하거든요.

—박사님의 고고학 연구 50년을 이루 다 열거할 수 없겠지만, 문무대왕 수릉봉 발견은 업적중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또 석굴암 연구도 그렇구요.

▲ 그게 어디 나온지 한일인가요. 우리

전(壽光殿)이고, 앞뒤 찢린 석굴암 상감문에 ‘비라굴’이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의심의 여지가 있었어요. 또 김대성이 현세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건립하고 전세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창건했으나, 전세 부모를 위한것은 아마타 신앙 아니겠어요. 단지 수인이 왕마족지인이라는 점이 문제인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애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 우리가 먼저 연구하여 더 잘 알아야 할 일 아닙니까. 얼마전에도 석굴암을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니까 좋아했는데 그에 앞서 우리나라인들이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창씨개명만 부처님

—경복궁에 있는 경전사지 10층 석탑이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크게 훼손돼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용산에 새 박물관이 건립되면 옮길 계획이래요. 신중론을 펴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보 관리위원회 다시 결성돼야 해요”

문화재에는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고대의 조형을 단순한 물건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 물건과 친숙해져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인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인들의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고미술품을 볼때는 10번 보라고 가르칩니다.

대 당시 신라인들은 이 수인을 아마타불 사상으로 해석했어요.

석굴암 부처님을 석가모니불이라고 한 것은 일본인이 발설한 것 입니다. 그들은 부처사 무량수전의 부처님도 석가여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람만 창씨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까지 창씨개명 했다고요.

▲나도 실내로 옮겨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더이상 야외에 둘 수 없는 상태예요. 원각사지 10층탑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한도까지 왔어요. 이제는 손만대면 떨어질 정도예요. 탑에다 지붕을 해서 싸우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럴 필요 없어요. 실내에 전시하고 그 자리에는 똑같은 새탑을 세우거나 아니면 앞으로 천년 갈 수 있는 오늘날의 탑, 또는 독립문등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탑을 세우면 되죠.

—옮기면서 파손될 우려는 없을까요.

▲걱정안해도 됩니다. 해체하면 아마 기막힌 보물이 나올 겁니다. 원각경 언해본과 회암사에서 분신했다는 사리가 나올 지도 모르죠.

—국립중앙박물관을 해방 50년이 되는 내년에 해방, 용산으로 이전 한다는 설에 대해 아직도 찬반이 분분합니다.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중앙청 건물은 치욕의 상징이므로 옮길 필요가 하지만 효용 가치가 없어질때 까지 쓸만큼 쓰면서 좀더 기다려 보자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적기가 올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기념사업으로 세계적인 박물관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청 건물을 박물관으로 쓰기위해 3백억이나 들어 수리해 놓고 쓰지 못하면서 케도에 살려고 하는데 또 옮기다니

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문화재의 과반수가 불교문화재이니까 지금이라도 속히 ‘성보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전에는 조계종에 ‘성보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렇만 걸어놓고 유야무야 했어요. 그리고 후학육성에도 투자를 해서 사람을 길러야해요. 그래야 멋있게 관리하겠다고 나설 수 있죠.

풍화보다 무서운 훼손

—반백년이라는 긴 세월동안에 많은 후진을 배출하셨습니다. 박사님의 우리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교육지침이 있으실텐데요.

▲문화재에는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고대의 조형을 단순한 물건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 물건과 친숙해져서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인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인들의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고미술품을 볼때는 10번 보라고 가르칩니다.

—남은 여생동안에 꼭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텐데요.

▲일본에 나가있는 삼국시대 불교문화재를 찾아서 정리하고 싶어요. 법흥사에 있는 백제관음, 육종주자등을 요즘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분명히 우리것이고 일본에 불교문화재를 전한 증표이거든요. 학술적 자료로서뿐 아니라 감상자를 위해서도 꼭 하고싶은 일입니다. 무조건 우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검토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종단에서도 성보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서 관심을 표명하면 더욱 좋겠죠.

—해방과 함께 걸어진 박사님의 고고학의 외길에 감사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어 후학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 축 임

제28대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p>국 안양본원 원장: 대행 / 주자혜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0343-72-3100, 1512 / Fax: 0343-72-2746</p> <p>금왕지원 지원장: 해법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0446-877-5000, 0462 / Fax: 0446-78-1896</p> <p>제주지원 지원장: 해묘 제주도 제주시 명림동 1500번지 Tel: 064-21-4662 / Fax: 검용</p> <p>부산지원 지원장: 해도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051-402-7077 / Fax: 051-403-1077</p> <p>광주지원 지원장: 해법 광주시 동구 계림1동 505-230 Tel: 062-225-0174 / Fax: 062-227-1075</p>	<p>온양지원 지원장: 청일 충남 온양시 실목동 52-6 Tel: 0418-44-1464 / Fax: 0418-548-4487</p> <p>울산지원 지원장: 해안 경남 울산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Tel: 0522-44-0884 / Fax: 0522-44-0182</p> <p>대구지원 지원장: 해계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 053-426-2779 / Fax: 053-425-8356</p> <p>마산지원 지원장: 해진 경남 마산시 합포구 동삼동 147-1 Tel: 0551-21-5454 / Fax: 0551-41-0946</p> <p>진주지원 지원장: 해근 경남 진주시 장대동 58-8 Tel: 0591-746-8163 / Fax: 0591-41-7125</p>	<p>대전지원 지원장: 해봉 대전시 동구 추동 440-9 Tel: 042-274-0891</p> <p>포항지원 지원장: 해문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0562-75-3163 / Fax: 0562-74-3503</p> <p>청주지원 지원장: 해진 충북 청주시 불명동 833 Tel: 0431-273-6946</p> <p>강릉지원 지원장: 해진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Tel: 0391-651-3003</p>	<p>해 알래스카지원 지원장: 청봉 1248 Medra Ave. Anchorage Ak. 98501 Tel: 907-278-9228 / Fax: 907-278-8513</p> <p>뉴욕 플러싱지원 지원장: 해봉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460-2019 / Fax: 718-939-3974</p> <p>버지니아지원 지원장: 해양 Tel: 703-560-5166</p> <p>시카고지원 지원장: 해진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Tel: 708-674-0811 / Fax: 708-674-0812</p> <p>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 지원장: 해봉</p>	<p>→ Miro 1575, 1406 Cap. Fed Tel: 541-92-9286</p> <p>투키만지원 지원장: 청협 El corte (Frente policia) Avenida Aconquiza Yerba Buena Tucuman Argentina Tel: 5481-25-1400</p> <p>캐나다지원 지원장: 청각 HarMaUm Seon Center of North America Toronto Center 814 Glencair Ave. North York, Ontario M6B 2A3 CANADA Tel: 416-789-9918 / Fax: 416-789-9969</p> <p>L.A 지원 지원장: 해중 300 South Harvard Blvd East Hall LA CA Tel: 2139-382-1711</p>
---	---	---	--	--